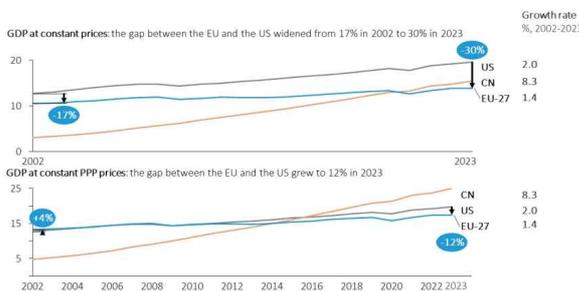


EU, 부다페스트 선언의 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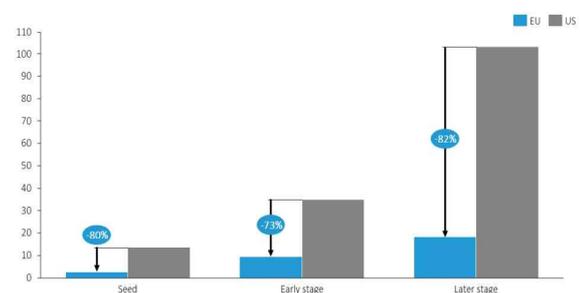
- 지난 11월 8일(현지시간) EU 이사회는 의장국인 헝가리에서 EU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한 부다페스트 선언을 채택함.1)
 - 본 선언문은 EU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 단일시장의 강화로 공공·민간투자 확보 △ 회원국 공통의 규제체계 확립 △ 혁신적 기술의 산업정책 확립 △ 안보 강화 및 우주산업 잠재성 활용 등을 제시함.
 - 경쟁력 강화 방안은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전 총리의 ‘시장 그 이상(Much more than a market)’(24년 4월) 보고서와 마리오 درا기 ECB 전 총재의 ‘유럽 경쟁력 미래(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24년 9월)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안됨.
- 이번 선언은 유럽경제의 저조한 성과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되었음.
 -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미국 경제와 달리 EU 경제는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023년 경제성장률(IMF) 기준 미국은 2.9%인 반면 유로지역은 0.4%에 그쳤으며, 그 중 주요국인 독일은 -0.3%, 프랑스 1.1%, 이탈리아 0.7%에 불과함.
 - 장기 시계열로 살펴보면, 미국 대비 EU의 GDP(Constant PPP 기준)는 2002년에 4% 높았으나 2023년에는 12% 낮게 나타나 미국과의 성장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그림 1).
 - 특히 회원국간 분절된 자본시장으로 인한 공공·민간 투자의 부족, 복잡한 규제체계, R&D 지출 부족 등이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선언문에 반영됨.
 - 스타트업 투자자금에서 EU는 미국대비 80% 정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그림 2).
 - ‘저축·투자연합’ 구축으로 자본시장의 통합을 추진하여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함.2)

그림 1. EU·미·중 성장 격차(2002~2023년)



자료: Mario Draghi(2024), “The future of European

그림 2. EU·미국 간 기업 발전 단계에 따른 벤처 자금 투자 격차



자료: Mario Draghi(2024), “The future of European

1) European Council 보도자료(2024. 11. 8), “Budapest Declaration on the New European Competitiveness Deal”.

competitiveness” .

competitiveness” .

- 본 선언문은 EU 27개 회원국의 합의문으로써 취임을 앞두고 있는 차기 EU 집행부의 도전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EU의 경쟁력 강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경쟁력·탈탄소화·디지털화를 위한 계획으로 청정산업협정(Clean industrial deal)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첫 100일 내에 제시할 것임을 밝힘.
 - 또한 차기 행정부는 △ 유럽저축·투자연합 △ EU 공통의 규제체계(regulatory regime) △ EU의 전략적 안보 강화 및 공급망 안정 등을 추진할 것을 제시함.
 - 새 집행부는 유럽의회 투표(11월 27일)와 EU 정상회의 승인을 거쳐 12월 1일에 취임할 것으로 전망됨.³⁾
- 러-우 전쟁, 미·중과의 무역분쟁 등 EU를 둘러싼 복잡한 대외여건 속에서 신임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EU는 이질적인 회원국의 연합이라는 특징으로 자본시장연합(Capital Market Union, 2015년부터 추진) 등 단일시장 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EU는 지난 11월 25일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스페인산 올리브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WTO 패널 판결 미준수에 대한 보상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부과 승인을 요청함.⁴⁾

부표 1. ‘부다페스트 선언’ 주요 내용

주요 내용
1. 단일시장 역할 강화 2. 2026년까지 저축·투자연합을 향한 결단적 조치 제시, 자본시장연합의 추진 3. 미래 핵심기술이 바탕이 되는 유럽 산업정책 추진 4. 기업(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명확하고 간단한 스마트 규제 체계 확립 - EU 집행위원회에 2025년 상반기까지 적어도 25% 이상의 보고 요건 감소 방안을 제안 요구 5. 국방 기술 및 산업 강화로 국방 능력 강화, 공공·민간 기금 확보, 우주산업의 잠재력 활용 6. 연구혁신능력 개발: 2030년까지 R&D 예산 GDP의 3% 달성 목표 7. 2050년까지 에너지 주권 확보와 기후 중립 달성 목표 8. 순환·자원 효율적 경제 구축 및 핵심원자재를 포함한 2차 시장의 통합 9. 산업간 디지털 변혁, 개인정보 및 보안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 기회 포착, 혁신적 기술 개발 등 집행위원회에 관련 제안을 2025년 6월까지 마련할 것을 요청 10. 유럽 전역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11. WTO하에서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정책 추구 12. 미래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자금을 동원할 필요에 따라 다년 재정 프레임워크, 민간 자금 동원을 위한 자본시장연합, 유럽투자은행의 참여 확대와 신규 수단 개발 모색 필요

자료: European Council,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ac_24_5786.



임유진 전문연구원

2) 유럽저축투자연합은 이탈리아 전 총리 엔리코 레타의 보고서 “시장 그 이상(Much more than a market)”에서 제안된 것으로 국경간 벤처캐피탈 펀드 개발 등 EU 내 단일 금융시장 구축을 목표로 함.
 3) Euractive(2024. 11. 27), “Plenty of deliverables await Commission when it finally takes office on 1 December”.
 4) Barrons(2024. 11. 25), “EU Steps Up Spanish Olives Spat with US”.